

TV 1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50 굿모닝! 채널A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7 50 박종진의 쾌도난마(재)	50 인간극장		0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천사의 선택>	05 KBC 뉴스지금 30 출발 모닝와이드 3부
8 40 노컷 글로벌한식토크쇼킹(재)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나라사랑>
9 40 신문으로 보는 세상	30 KBS 뉴스	00 TV 소설 <사랑이 사랑아> 40 여유만만	30 MBC뉴스 40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30 SBS뉴스
10 40 이영돈 PD 논리로 풀다(재)	00 중계방송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회 (이진성)	50 지구촌 뉴스		
11 50 채널 A 뉴스		10 스포츠 타임 20 사랑의 가족 50 수목드라마 <각시탈>(재)	00 대장경 천년 특별기획 <무신>(재)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2 10 여행이 좋다(재) 40 월 먹지?(재) 50 대담한 인터뷰(재)	00 KBS 뉴스 12		00 MBC 뉴스 10 100특집 지원봉사 희망프로젝트(나눔면 행복)	00 SBS 12뉴스 30 건강칼럼
1 50 이인경의 세상만사 1~2부	00 KBS결혼식 <공주의 남자>(재)		05 MBC 지식나눔콘서트 <위러브유>	3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스페셜
2	00 KBS뉴스 10 2012 월드컵 코리아리그 남자부 <인천도시공사vs 울산FC>(재)	00 2014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우즈베크:대한민국>	05 고향을 부탁해(재)	00 SBS뉴스 10 세상살이 권유레카
3 50 그 여자 그 남자(재)	40 아름다운 사람들 스페셜(재)		10 키즈 어드벤처 여기가 어디야? 베스트 50 MBC뉴스	10 세네트(재)
4 50 박종진의 쾌도난마	00 KBS 오늘의 경제 10 KBS 네트워크 특선 <소화제 2-청원>	00 뛰뛰빵빵 구조대(재) 30 TV 유치원	00 뽀뽀 아이조아 30 인생 토토비	00 아기공룡 둘리 30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두리둥실 물계공방 15 뽀뽀아 놀자 30 칭/진/기	00 SBS 뉴스 퍼레이드 30 생방송 투데이 1~2부
6 00 신기한 동물나라 3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 정보통 1~2부	00 MBC뉴스 10 생방송 월화수목 50 생방송 전국시대	
7 40 관찰카메라 24시간(재)	00 KBS 뉴스7 30 스키아웃	45 일일시트콤 <덕치고 패밀리>	45 일일시트콤 <스텐바이>	20 일일드라마 <그레도 당신>
8 50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재)	25 일일연속극 <별도 달도 따줄게>	20 특집 세상의 별별식탁 50 비타린	15 일일연속극 <그대없이 못살아> 55 MBC 뉴스데스크	00 SBS 8 뉴스 30 KBC 8 뉴스 45 SBS 스포츠 뉴스 50 한밤의 TV연예
9	00 KBS 뉴스9	55 수목 드라마 <세상이어도 없는 차남>(재)	55 수목미니시리즈 <아랑외전>	55 드라마 스페셜 <아름다운 그대에게>
10 00 뉴스A	00 환경스페셜 50 아름다운 사람들			
11 00 분노왕	00 KBS 뉴스라인 40 수요기획	15 추적 60분	15 황금어장	15 짝
12 10 박종진의 쾌도난마(재) ①:10 불멸의 국가대표(재)	25 KBS 뉴스 35 클래식 오디세이	15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세상의 모든 디큐	35 MBC뉴스 24 45 자원봉사희망프로젝트 <나눔면 행복 스페셜>	35 나이트라인 45 말말라 영화산책(재)

포스트 7080... 이번엔 90년대 복고 열풍

그룹 콜·연풍연가 OST 리메이크 곡 음원 차트 정상에

올 초 영화 '건축학개론'에서 시작된 1990년대 복고 열풍이 가요계에서도 뜨겁다. '건축학개론' '응답하라 1997' 등 1990년대 대 배경으로 한 영화·드라마의 인기로 힘입어 1990년대 가요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가 하면, 아예 1990년대 정서를 전면에 내세운 신곡도 쏟아지고 있다. 가요계의 '1990년대 복고 열풍'은 음원 차트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다. 멜론, 엠넷닷컴, 올레뮤직 등 주요 음원 사이트의 11일자 일간 차트(10일 기준)를 평정한 곡은 '올 포 유(All For You)'. 1990년대 스타인 그룹 콜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곡이다.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97'의 남녀주인

공 서인국·정은지가 함께 부른 이 곡은 지난 28일 공개되자마자 차트 정상에 올라 벌써 보름 가까이 장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다. 역시 서인국·정은지가 리메이크한 영화 '연풍연가(1999)'의 OST 수록곡 '우리 사랑 이대로'도 주요 음원 사이트의 실시간 차트 '톱 10' 자리를 지키며 순항 중이다. 1990년대를 풍미한 그룹 공요리(015B) 역시 올 들어 1980-90년대의 감성을 반영한 신곡을 잇따라 선보이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지난 3일 싱글 '짹'을 발표하며 활동을 재개한 공요리는 5월 '렛 미 고(Let Me Go)', 7월 '80'을 발표하는 등 두 달에 한 곡씩 복고풍 신곡을 발표하며 1980~90년대를 기억하는 팬들의 향수를 자극했다.

이 같은 가요계의 복고 바람은 한국 대중 문화 전반에 퍼진 '1990년대 재조명 붐'과 맞물려 있다. 1990년대에 학창시절을 보낸 30~40대가 경제력을 바탕으로 문화 소비를 주도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1990년대를 테마로 한 문화 상품이 인기를 끌게 됐다. 1990년대 콘텐츠 자체의 우수성에 주목하는 견해도 있다. 대중음악평론가 성시권은 "1990년대에는 서태지와아이들, 김동률 등 대중성과 음악성을 두루 갖춘 실력 있는 아티스트들이 많이 나왔고 음악의 장르도 다양해졌다"면서 "1990년대는 한국 음악이 질적, 양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룬 시기"라고 말했다. <연풍연가>

정찬우·최은경 '고부갈등' 유쾌하게 풀어간다

채널A '웰컴 투 시월드' MC 발탁

방송인 정찬우(사진 왼쪽)와 최은경이 종 합편성채널 채널A의 새 토크쇼 '웰컴 투 시월드' MC로 발탁됐다. 11일 채널A에 따르면 '웰컴 투 시월드'는 연예인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의 고부갈등 사 연을 유쾌하게 풀어가는 토크쇼로 13일부터 매주 목요일 밤 11시 방송된다. 김순겸 PD는 "정찬우는 이 프로그램의 청

일점으로서 아들과 남편의 입장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입담을 가졌고, 최은경은 며느리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소통의 능력이 탁월하다"고 MC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 외에 배우 전원주, 양희경, 송도순 등이 시대를 대표하는 시월드 패널로 출연하고 며느리월드 패널로는 방송인 김지선, 배우 안연홍, 윤유선 등이 나온다. <연풍연가>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12일(음 7월 26일 丙子)

<p>子 36년생 기초가 되는 저변을 잘 살펴보다. 48년생 상대의 아량이 감동하겠다. 60년생 기회가 오면 즉시 잡아야 한다. 72년생 발전적인 상호 교체가 필요하다. 84년생 나쁘게 바뀌지 않겠으니 걱정하지 마라. 행운의 숫자 : 65, 14</p>	<p>丑 37년생 이해득실에 얽매지 않아야 한다. 49년생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날 것이다. 61년생 두각을 나타내리라. 73년생 막혔다가 급히 터지는 모습이다. 85년생 본바탕은 꾸밈으로써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행운의 숫자 : 35, 28</p>
<p>寅 38년생 심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용시켜 봐도 되겠다. 50년생 전반적인 몰락기가 예상된다. 62년생 보고 듣고 느낀 대로만 전달해야 하느니라. 74년생 진부함을 벗어 나려는 명쾌한 과격이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76, 81</p>	<p>卯 39년생 도무지 찾을 길이 막막하겠다. 51년생 중요한 때에 당황하여 머뭇거리길 수도 있다. 63년생 평소 애써 체제를 잘했다면 큰 인연과 연계되리라. 75년생 위치에 따라 서로 각자 다른 의미가 있음을 알아. 행운의 숫자 : 47, 08</p>
<p>辰 40년생 상대를 존중해 주는 것이 좋다. 52년생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찬스를 놓치게 된다. 64년생 정성을 들이면 훨씬 얻는 바가 많을 것이다. 76년생 밤심한다면 빈틈을 헤집고 들어오는 이가 있을 수다. 행운의 숫자 : 25, 20</p>	<p>巳 41년생 공평하게 처리해야 하느니라. 53년생 중지를 모아서 행하는 것이 훨씬 낫다. 65년생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을 써야 무리가 없다. 77년생 허물을 명백하게 지적해줘야 반복하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04, 42</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행영!” ☎010-9790-8237

EBS	
06:00 극한직업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이종인의 밥상의 즐거움을 만나다 -남자들께볶음과 개스투세우침)
06:30 성공!인생 후반전	10:30 세계테마기행 (인도네시아 자바섬 방랑 3부 -사람의 향기 리마아나)
07:00 척척폭죽 처럼	12:00 EBS 정오 뉴스
07:30 꼬마 권권 권	12:10 역사특강
07:45 꼬마버스 타요	13:00 EBS 다크프라임 (탈북, 그후 - 3부 먼저온 미래)
08:00 당동당 유치원 1~3	14:00 지식재능
08:30 뽀뽀뽀 뽀로로	14:05 함께하는 한국어
08:45 출구는 골 풍아	14:45 영어유치원 오 기버기버
09:00 방구대장 뽀뽀이	15:10 고양이 피피
09:10 디노와 노래해	
09:15 푸비푸비 노래	
09:30 달라라 카카	
09:40 클로이의 오솔웃장	
10:00 부모	

EBS플러스1	EBS플러스2
00:00 2014 대비수능 스티트 <김철회의 국어 B형> <윤연주의 영어 B형>	10:00 2012수능완성 <김지은의 경제지리> 10:50 <장인수의 물리II> 11:40 <이희나의 화학II>
01:40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박정호의 물리II> <윤정환의 국어> <이병희의 지구과학II>(1) <이병희의 지구과학II>(2) <김현준의 화학II>(1) <김현준의 화학II>(2)	12:30 선생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재) 13:00 2012수능완성 <송기택의 윤리> <문병일의 경제> <윤희석의 사회문화> <권주희의 생물I> <박남정의 지구과학I> <박숙녀의 적분과 통계>
06:40 2012 탐스런 <김승희의 윤리와 사상> 07:30 <최신욱의 지구과학I> 08:20 2014 대비수능스틸트 <정현경의 수학II>	15:00 <이창주의 수학II> <윤해정의 언어> <윤연주의 외국어 영역> <이희명의 세계사>
09:10 <박숙녀의 적분과 통계>	23:00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굿모닝 잉글리쉬	한자이야기	니하오 쑹구위	오하오우 니혼고
<p>When do you go to work? 언제 출근합니까?</p> <p>A : When do you go to work? B : I go to work at 9 : 00. A : Maybe we can go together since my office is near yours. B : Really? That's good. We can share a car.</p> <p>A : 언제 출근합니까? B : 저는 9시에 출근합니다. A : 제 사무실은 당신 사무실 가까이에 있으니까, 함께 출근할 수 있겠군요. B : 정말요? 잘됐네요, 택시도 함께 탈수 있겠군요.</p> <p>* 저는 회사에 출근합니다. = I'm going to my company. (×) = I'm going to my office. (×) = I'm going to work. (○)</p>	<p>一瀉千里(일사천리) 한 일, 쏟아져 사, 일천 천, 마을 리</p> <p>일사천리(一瀉千里)란 어떤 일이 거침없이 진행될, 또는 말이나 글이 조금도 거침이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남송(南宋)의 학자 진량(陳亮)은 '여신유안전찬(興幸幼安殿撰)'이라는 글에서 장강(長江)의 위용을 "장강은 대하이니 일사천리로 흐른다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라고 노래했다. 이처럼 일사천리는 본디 장강이 거침없이 천 리를 내달는 모습에서 나온 말이다. 그것이 지금은 장강의 흐름처럼 어떤 일을 매우 신속히 처리하는 것을 비유하게 되었다.</p> <p>[출처] 『여신유안전찬(興幸幼安殿撰)』</p>	<p>蒙古大夫 měnggǔ dàifu 몽고의사는 돌팔이?</p> <p>글자 그대로 보면 몽고(蒙古) 의사(大夫)입니다. 몽고지역 사람들은 웬만한 병은 자연치유력에 맡기고, 뼈가 부러지거나 중병이 되어야 의사를 찾는다고 하며 그러기에 의사 또한 강한 약을 써서 바로 효과를 보게 하고, 물리요법이나 뼈를 맞추는 치료법에 능숙했다고 합니다.</p> <p>창대에 궁궐에서 몽고의사가 몇 있었는데 그들이 황족을 치료하며 몽고에서 쓰던 동일한 약을 사용하니 내성에 길들이지 않는 도시 사람들은 못견뎠습니다. 효과를 보이기도 전에 심한 부작용을 일으켰죠. 그래서 몽고의사라 함은 병의 치료보다는 약화시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p> <p>우리말 '돌팔이'의 어원을 보니 고정되지 않고 돌아다니는 의사, 또 하나는 돈을 팔아 사는 의사 등의 설이 있는데요.</p>	<p>入院(にゅういん)した そうですね。 입원했다면서요</p> <p>A : エイタ君(くん)、入院(にゅういん)した そうですね。 B : 明日(あした)手術(じゅじゅつ)を すると ということです。</p> <p>A : 에이타 군, 입원했다면서요? B : 내일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p> <p>「~ということです」는 '~라고 합니다'라는 뜻으로, 어떤 사항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어서 알았다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전문'표현의 일종이다.</p> <p>* 今夜は雪になるだろうということです。 = 오늘 밤은 눈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今夜(こんや) 오늘 밤 雪(ゆき) 눈</p>
<p><동아 외국어학원> www.donga.tv ☎ 222-6253</p>	<p><대능교육> www.daeneungedu.com ☎ 02-2634-2007</p>	<p><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p>	<p><아스카일본어학원 강사 남궁경일> http://www.kjasuka.co.kr ☎ 232-1503</p>